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연구

김 희 성

(명지전문대학)

[요 약]

본 연구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빈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미래에 빈곤을 탈피하는데 필요한 자립준비를 예측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빈곤가정 청소년과 관련된 요인들이 임파워먼트를 통해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빈곤가정 청소년 240명을 대상으로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요인(가족관계, 조직참여경험, 교사지지, 문제행동, 사회복지 서비스이용, 친구관계)이 자립준비에 대해 임파워먼트(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를 통한 간접효과를 갖는지를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가족관계, 친구관계 변수는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를 통해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참여경험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와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를 통해 그리고 문제행동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임파워먼트가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매개기능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임파워먼트가 매개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임파워먼트의 매개기능을 이론화하는데 실증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빈곤가정 청소년, 자립준비, 임파워먼트

1. 서 론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빈곤을 세대전승하지 않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립준비의 과정은 성인이 되어서 자기 충족적인(self-sufficient) 삶을 이루기 위해 직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능

력을 갖추는 것으로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매우 유용하다(Hills · Sandford, 1995: 92-93; Israel · Seeborg, 1998:755).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은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신체, 심리, 사회, 인지, 감정 등 모든 발달의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outh, 1994:347-348; McLoyd · Jayayatane · Ceballo · Borquez, 1994:564-566).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에게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은 빈곤이 세대를 전승하여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설 퇴소아동을 중심으로 시설을 퇴소한 후 독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자립의 준비는 시설퇴소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결핍과 어려움으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하고, 빈곤의 세대전승을 예방하기 위해 자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빈곤가정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기는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도 인식하여 공부방, 복지관, 동사무소, 청소년 자활지원관¹⁾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실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지식, 기술, 정책 등의 부족으로 빈곤의 세대전승을 막고 청소년들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 연구의 필요성과 실천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빈곤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강점을 부각하는 시각을 적용하여(Grossman, Beinashowitz, Anderson, and Sakurai, 1992; Barnett and Shonk, 1996; Zimmerman, 1999; Markstrom, Marshall, and Tyron, 2000; Gutman and Midgley, 2000; 박현신, 1999)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빈곤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빈곤한 개인은 항상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만은 아니다. 빈곤한 상태에서 개인을 벗어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 중에서 임파워먼트는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노력을 내재화하여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거나 개인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계속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다(Lord and Hutchison, 1993; Ease, 1999; Edward; 1999). 임파워먼트²⁾는 개인이 자기 내부의 힘을 찾아 결과적으로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의 측면에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으로(Cox and Parsons, 1994; Zimmerman, 1995; Bolton and Brookings, 1996; Parsons, 1999), 개인이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게 되면 대인관계, 집단, 조직, 사회적인 수준의 임파워먼트와 상호작용하게 된다(Simmons and Parsons, 1983; Lee, 1994; Gutierrez, 1994; Zimmerman, 1995; Parsons, 1999). 즉, 빈곤한 청소년의

- 1) 청소년 자활지원관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호, 지도함으로써 자활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 및 취업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습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7년 7월 10개의 자활지원센터 청소년 자활지원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후 2001년 7월에 10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전체 20개소에 이른다.
- 2) 임파워먼트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는데, 개인적 수준에서 시작된 임파워먼트는 대인관계, 정치, 사회적인 기술과 자원을 통해 조직, 사회차원까지 영향을 맺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개인적 차원의 임파워먼트에 한정하기로 한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적인 심리나 정신내적 현상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내재화하여 빈곤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빈곤과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는 빈곤한 상황을 벗어나는데 임파워먼트가 매개효과를 한다는 연구결과가(Lord and Hutchison, 1993; Howard, 1996; East, 1999; Edward, 1999; Zimmerman, 1999) 발표됨에 따라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임파워먼트를 형성하는 것이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한 상황에서 성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빈곤의 세대전승을 예방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이 삶에 대한 통제력과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를 통한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빈곤가정 청소년과 관련된 요인이 어떻게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빈곤가정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발달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빈곤의 세대전승을 예방하기 위해 자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실천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의 제공과 정책적 방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2. 문헌연구

1) 임파워먼트의 개념

임파워먼트는 1970년대 말의 지역사회 발전운동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대인서비스 분야의 철학이 되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정치, 경영, 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임파워먼트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국가등 그 주체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개인적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대인관계기술이나 정치, 사회적인 기술과 자원을 통해 조직이나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게 된다(Schulz, Israel, Zimmerman, and Checkoway, 1995). 그러므로 개인적 수준에서 임파워먼트를 형성하여 내부의 힘을 찾아 동기를 보강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을 유지시켜 개인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문제해결과 자기방향성을 증진시키는 대인관계나 환경과의 상호작용능력을 발전시켜 결국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Simmons and Parsons, 1983; Lee, 1994).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개념을 근거로 결론지어 보면, 임파워먼트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내재화하여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적 수준에서 시작된 임파워먼트는 집단, 조직, 사회적인 수준의 임파워먼트와 상호작용하여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임파워먼트는 다양한 차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적인 영역으로 하위 개념을 분류하고 있다(Gutierrez, 1989: 203; Simons, 1994: 195; Parsons, 1999: 20).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행동, 기술, 문화적 인

식, 동기, 통제, 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수들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개인적 능력, 집단인식, 자기결정의 개념을 포함한다.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데, 자기를 남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며,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줄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동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는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의 인지된 능력과 자기 효능감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환경에서 통제감을 발휘하기 위해 행동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개념과 연관을 갖는다.

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자립(self-reliance)이란 남에게 매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자기 힘으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위에 서는 것을 말한다. 신혜령(2001)은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준비를 연구하면서 ‘자립은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속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는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개별적 독립이라는 의미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립준비의 개념은 아직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인 틀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직업소망, 미래에 대한 기회인식, 직업기대 등의 변수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기의 자립정도를 예측하는 변수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옥경희(1993)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지를 알아보는 직업소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직업소망은 장래에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호킨스(Hawkins, 1998)는 도시의 흑인빈곤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래에 자신이 갖게 될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직업적 기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미래에 대한 기회의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퀘인과 란킨(Quane and Rankin, 1998)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하는지를 보는 직업기대를 변수로 선정하여 빈곤가정 청소년이 성인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윌슨(Wilson, 1991)은 도시빈곤지역 청소년들의 직업기대감을 통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실직빈도와 지역사회에 만연한 무기력감의 분위기가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런 결과는 빈곤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빈곤한 삶이 직업과 같은 청소년들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 대부분이, 직업적인 측면에만 한정되어 있어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미래의 자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의 개념을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 특히 빈곤의 세대전승을 방지하고,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자기 충족적인(self-sufficient)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준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이르러 빈곤한 상황에서 벗어나

자기 충족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족으로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 직업 등의 가족배경(옥경희, 1993), 모자가구주인지 이혼가족인지의 가족구조(Israel and Seeborg, 1998) 등의 가족의 구조가 빈곤청소년의 청소년기 이후의 생활상태를 예측하는 변수로 밝혀졌다. 또한 가족의 구조적 특징 외에 그로스만 등(1992)은 가족응집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문제위험에 있어 보호요소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밝혀서 가족의 중요성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현재 뿐 아니라 자립을 준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이외에도 빈곤가정 청소년의 중단연구를 통해 빈곤자와 비빈곤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진 교육(Cohen and Tyree, 1986)은 이후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의 적응(Quane 외, 1998), 적성과 교육기대(Israel 외, 1998)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빈곤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과 교사의 관심뿐만 아니라 또래친구와 이웃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Wilson, 1991; Quane, 1998), 빈곤가정 청소년이 가정의 빈곤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가 모두 빈곤한 환경에 놓여있는 빈곤문화 속에서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and Tyree, 1996). 빈곤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발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빈곤지역의 고위험 청소년 집단에게 청소년을 함께 참여시켜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사정하도록 하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는 결과(Roberts-Grey, 1999)와 복지수혜가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수에 비해 덜 명확히 나타났다는 부정적인 결과(Quane, 1998)가 함께 보고되어 이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

빈곤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을 변화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서 바라보는 강점관점의 시각에서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에 들어서야 임파워먼트나 적응 유연성 등의 개념을 사용한 연구조사 결과가 밝혀지고 있다.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개념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서 정리하는 바와 같다.

마크스트롬 등(Markstrom 외, 2000)은 도시 빈곤청소년의 자아강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족과 친구에 의한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과 희망적인 사고의 대처행동을 설정한 결과 가족에 의한 지지와 대처행동방식이 자아강점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나타내었다. 이런 가족의 중요성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연구(옥경희, 1998; Grossman 외, 1992; Hills and Sandford, 1995; Israel and Seeborg, 1998)에서 빈곤 가정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오티즈토레스(Ortiz-Torres, 1994)도 빈곤, 비행 등 고위험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또래관계, 가족관계, 이웃에의 참여, 학교에의 참여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가족관계에서는 가족에의 참여가 행동적인 임파워먼트보다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예측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자립을 준비하거나 임파워먼트를 형성하는 데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모두 가족이 중요한 요소

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마크스트롬 등(2000)의 연구에서는 친구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강점을 예측하는데 무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는데 이와는 다르게 오티즈토레스(1994)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임파워먼트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한 변수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그 관계가 부적 관계로서 또래집단에 참여하면 할수록 임파워먼트의 수준은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관계가 임파워먼트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티즈토레스(1994)의 연구에서는 이웃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행동적 임파워먼트에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에의 참여가 주도성, 의사결정, 리더십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는 고위험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이루어내긴 했으나 단순한 참여부만으로는 임파워먼트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들 체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질적인 부분과 이런 체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의 참여는 빈곤 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예측하는 변수로서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정주 등(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청소년을 사회 구조에 통합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질 있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영향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임파워먼트의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참여와 임파워먼트는 청소년이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사회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문제를 통해 사고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집단 의식을 갖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발달을 하는데 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의 중요성은 실제 연구조사에서도 밝혀졌는데 지머만(Zimmerman, 1990)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해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면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의사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됨으로써 임파워먼트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지머만과 라파포트(Zimmerman and Rapaport, 1998: 726)는 임파워먼트가 사회정책과 사회변화에 대한 개인적 강점과 능력, 기본적인 원조체계, 보호행동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시민참여의 종류와 그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헌신정도를 측정했는데, 지역사회 활동과 조직에의 참여가 크면 클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스만 외(1992)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위험, 보호요소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현재의 임파워먼트를 우울감, 이탈행동, 자아존중감, 성적으로 개념화하였는데 연구결과는 가족응집력, 통제감, 부모의사소통, 부모 외 다른 어른과의 관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결과에 있어 가장 강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는데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들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가족과 관련된 요인과 친구, 학교, 지역사회의 요인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4)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임파워먼트는 솔로몬(Solomon, 1976)이 *'Black Empowerment'*란 책을 통해서 임파워먼트의 개념에 대해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빈곤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개입방법으로 제시되어 임파워먼트가 빈곤한 상황을 탈피하는데 매개효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요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각각의 개인이 임파워먼트를 이루는 것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관한 언급이나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배고은(1999)의 연구에서 창의적인 행동을 일으키는데 심리적인 임파워먼트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밝혔고, 간호학 분야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여러 환자군이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조사방법을 통해 임파워먼트를 형성해 낸 환자나 가족들이 삶의 만족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 향상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김효빈, 2001; Gibson, 1995). 사회복지학의 빈곤연구 분야에서도 빈곤의 탈피나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는 방법에 관해서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의 측면에서 모두 접근하고 있는데, 빈곤탈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도시 저소득층 흑인 밀집 주거지역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적응하며 살게 되는데 있어서 개인적 자원, 가족 강점, 지역사회 지지의 요인을 통해 적응유연성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적응유연성이 조절변수로 기능한다고 결론지어 적응유연성과 같은 강점관점인 임파워먼트 연구에서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해 주었다(Howard, 1996). 또한 사회적 고립, 빈곤, 학대의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 하여 빈곤한 여성들의 무기력감, 사회복지 서비스에의 의존감, 자아존중감의 결여,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 억압받는 느낌 등을 극복하는데 임파워먼트의 과정을 통해 빈곤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질적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빈곤여성에 대한 임파워먼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Lord and Hutchison, 1993). 이스트(East, 1999)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직업훈련만 실시하는 것이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자립을 위해서는 임파워먼트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WISE(Women's Initiative for Service and Empowerment)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인적 임파워먼트의 강화를 위해서 자아존중감 확립, 자기효능감 증진, 개인의 강점 확립,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중요한 관계 통합, 영적 통합, 상담을 실천하였다.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이해, 스트레스 관리, 집단 활용의 실천기법을 활용했고,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여성센터 설립, 의식 강화, 지역사회에 참여, 지도자 훈련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기술이 향상되고, 개인적 목표 충족, 자원이용과 지지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취업이 증가하고, 지역사회내의 다수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다. WISE 프로젝트는 빈곤을 탈피하는데 있어서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 임파워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내어 임파워먼트의 구체적이거나 양적인 효과를 밝혀내진 못

했다 할지라도 이후의 연구에 있어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의 기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중소지역 도시에서 지역사회행동 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을 실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빈곤층에게 법적 상담, 경제적 서비스, 노인 프로그램, 지도자 훈련과 취업 등을 통한 임파워먼트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고, 에드워드(Edward, 1999)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빈곤층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늘리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활동을 늘리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주로 임파워먼트의 과정을 임상에서 실천한 프로그램이나 질적 조사를 통해 빈곤 탈피 과정에 있어서 임파워먼트의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관한 양적 연구로는 심리학적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소개한 지머만 등(1999; 743)이 도시지역 흑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신건강 결과를 예측하는 변수로 청소년의 무력감과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빈곤가정 청소년이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직업, 탈빈곤 자립의 과업을 수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임파워먼트의 간접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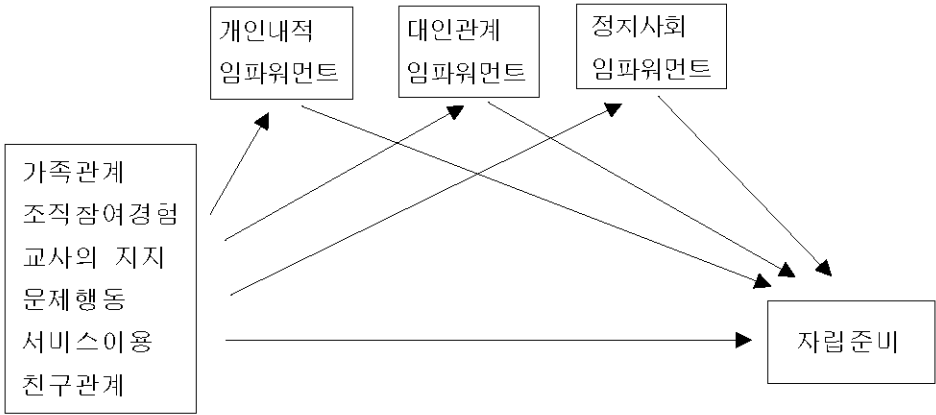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으로 가족관계, 조직참여경험, 교사의지지, 문제행동,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친구관계를 독립변수로, 자립준비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특히 빈곤가정 청소년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임파워먼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논의를 고려하여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분석들에 따라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이 자립준비에 대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를 통해 간접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빈곤가정 청소년관련 요인(가족관계, 조직참여경험, 교사의지지, 문제행동, 서비스 이용, 친구관계)은 자립준비에 대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가설 2. 빈곤가정 청소년관련 요인은 자립준비에 대해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가설3. 빈곤가정 청소년관련 요인은 자립준비에 대해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림 1> 연구분석틀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빈곤가정의 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가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로서 현재 정규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고등학교 학생이다.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모집단에 대한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의 판단과 목적에 기초하여 표본을 선정하기로 한다. 모집단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기는 해도 표본이 빈곤청소년이라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빈곤가정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복지관, 동사무소, 청소년 자활지원관, 공부방의 4가지 종류의 기관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동사무소 8개소, 지역사회 복지관 3개소, 청소년 자활지원관 4개소, 공부방 3개소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된 대상자를 의뢰 받거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대상자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2001년 12월 20일부터 2002년 1월 27일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회수된 총 240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 자립준비,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질 변수와 측정도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자립준비와 임파워먼트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은 가족관계, 조직참여경험, 교사의 지지, 문제행동,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친구관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가족관계변수는 가족 관계에서의 친밀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아버지, 어머니, 기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후, 이 세 가지 관계의 종류를 합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조직참여변수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조직에 참여경험이 있는지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2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고,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조직에 참여하였는지를 7점 척도로 기록하도록 하였다(Zimmerman and Zahniser, 1991).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놀텐(Nolten, 1994)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번역한 ‘학생사회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는 김지혜(1999)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해, 강민정(2000)이 가출청소년을 연구하면서 사용한 바 있으며, 김지혜(199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92\sim.97$ 로 나타났으며, 강민정(2000)의 연구에서는 $\alpha=.96$ 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변수는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약물, 가출, 집단폭력, 무단결석의 6가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도를 0부터 7까지의 척도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변수는 빈곤 가정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변수는 빈곤가정이나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를 조사하여 그 항목을 구성한 것으로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종류를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서비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복지관의 시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상담, 복지관의 후원금, 복지관에서 하는 학교 특별 활동, 기타 단체의 후원금, 결연 대상자나 자원봉사자로부터의 도움, 청소년회관 시설, 구청·동사무소 공무원과 상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의료보호,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의 동아리 활동, 공부방, 청소년 자활지원관의 프로그램, 국가의 무료 직업훈련의 15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이용경험과 이용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토록 하였다.

친구관계변수는 레이와 코헨(Ray and Cohen, 1996)이 개발한 친구관계 척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이 척도는 이연경(2000)이 청소년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수는 18문항이며 본 조사의 신뢰도는 $\alpha=.91$ 로 나타났다.

둘째, 자립준비의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DHSS(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에서는 자립준비에 필요한 자립기술의 하위영역을 일상생활 기술, 건강관리기술, 주택관리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기술, 진로(직장문제)기술, 돈관리 기술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이외에 자조집단 및 지역사회의 자원활용 기술, 그리고 자아향상 및 자립심 강화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노충래, 2001). Casey Family Program(2001)의 경우, 이들 기술영역을 크게 일상생활 기술, 주택 교통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돈 관리 기술, 자기관리, 사회성 발달, 직장 및 학업기술로 분류하였다. 놀란(Nollan, 2000)은 시설외소 아동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사회적 발달, 교육적·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과 자기관리, 도덕적 발달, 돈, 주거 관리 등의 5개 하위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이들의 자립준비를 위한 측정도구로 Angell-Casey Life Skills Assessment(ACLSA)를 발전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놀란(2000)이 제시한 하위 영역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성, 직업가치관, 직업태도, 생활관리, 자립의지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영역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본

연구대상이 빈곤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³⁾ 연구자가 각각의 하위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직업준비, 직업가치관, 생활관리, 자립의지를 조사하여 총 합산된 점수를 자립의지의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회성이 $\alpha=.87$, 직업준비가 $\alpha=.86$, 직업태도가 $\alpha=.74$, 생활관리가 $\alpha=.85$ 로 나타났다.

셋째, 임파워먼트의 결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해 다양하게 측정해 보고자 한다(Cox and Parsons, 1994; Zimmerman, 1995; Bolton and Brookings, 1996; Parsons, 1999).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볼튼과 브루킹스(Bolton and Brookings, 1998)에 의해 개발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척도(intrapersonal empowerment scale)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 척도는 개인적 능력, 집단에 대한 인식, 자기결정의 3가지 하위개념의 52문항으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71$ 로 조사되었다.

<표 1> 주요변수와 측정도구

변수		측정도구	신뢰도 α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	가족관계	부모, 형제, 자매와의 관계	.73
	교사의지지	학생사회지지척도	.91
	친구관계	친구관계 척도	.91
	조직참여 경험	모임참여의 활발정도	.67
	문제행동	문제행동의 심각도	.80
	사회복지 서비스이용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정도	.81
임파워먼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척도	.71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적절성 평가도구	.61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척도	.77
자립준비	자립준비	사회성, 일에 대한 태도, 직업준비, 생활관리, 자립의지 척도	.75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측정하는 데에는 단일척도가 개발되지 않아서 선행연구의(Zimmerman, 1995; Parsons, 1999) 논의에서 나타난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대인관계 적절성의 척도를 사용하기로 한다. 대인관계 적절성 척도는 안범희(1985)에 의해 개발된 총 64문항으로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61$ 로 나타났다.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는 지머만 등(1991)이 청소년을 위해 개발한 정치·사회 통제감 척도

3) Nollan 외(2000)가 제시한 ACLSA의 척도는 미국의 시설외소 아동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조 사하기 위한 측정도구여서, 우리나라의 문화상황과 가정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빈곤가정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socio-political control scale)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척도는 지도자 능력과 정치통제의 두 가지 하위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더십 능력은 신뢰도 $\alpha=.76$ 으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 통제는 신뢰도 $\alpha=.75$ 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총 17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77$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구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과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자립준비에 영향을 주는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과 임파워먼트의 매개변수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들간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윈도우용 SPSS 10.0과 AMOS 프로그램 4.0 버전⁴⁾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빈곤 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96명으로 40.5%이고, 여자가 141명으로 59.5%를 차지해 여자 청소년이 조금 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학년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64명으로 26.7%이고, 2학년이 70명으로 29.2%이며, 3학년이 98명으로 40.8%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성인기에 바로 진입하게 되는 3학년 학생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1,2학년은 비슷한 분포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살펴보면, 인문계가 109명으로 46.8%이고, 실업계가 124명으로 53.2%로 나타나 인문계와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들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경로분석은 변수들 사이에서 상관관계 또는 공분산 그리고 인과관계를 계산하여 표시하고, 이들을 하나의 경로로 묶어 모형을 구축하게 되는 분석이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문항내용	빈도	백분율
표집기관별 분포	청소년 자립지원관	95	39.6
	지역사회복지관	71	29.6
	동사무소	50	20.8
	공부방	24	10.0
성별	남	96	40.5
	여	141	59.5
학년	1학년	64	26.7
	2학년	70	29.2
	3학년	98	40.8
학교	인문계	109	46.8
	실업계	124	53.2
가족구조	부모 없음	13	5.7
	편부모	69	30.1
	양친부모	147	64.2

2) 연구모형의 주요 구성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연구대상의 주요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우선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7점 척도로 조사한 가족관계와 조직참여경험, 문제행동,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비교해 보면 조직참여경험이 평균 5.19점으로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조직에 참여하는 정도가 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관계는 평균 5.11점으로 평균이상으로 가족관계에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문제행동의 정도는 2.39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정도는 1.51로 그 이용정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교사의 지지와 친구관계는 4점 척도로 이루어졌는데 교사 지지는 2.56이고, 친구관계는 3.11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교사의 지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에 있어서는 4점 만점에 대인관계 임파워먼트가 2.8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정치사회 임파워먼트가 2.87점이며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2.36으로 다른 임파워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준비는 2.79로 나타나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볼 때, 69.7점 정도로 조사대상자들인 빈곤가정 청소년의 현재 자립정도가 70점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었다.

<표 3> 주요구성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빈곤가정 청소년관련 요인	가족관계*	5.11	1.18
	교사의 지지	2.56	0.66
	친구관계	3.11	0.55
	조직참여경험*	5.19	1.65
	문제행동*	2.39	2.25
	사회복지서비스이용*	1.51	1.23
임파워먼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2.36	0.42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2.88	0.59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2.87	0.50
자립준비	자립준비	2.79	0.26

*는 7점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임

3) 경로모형 분석

빈곤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사의 지지, 조직참여 경험, 문제행동,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정도의 변수가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와 연관되어 어떻게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분석틀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1) 모형부합도 평가결과

본 연구의 경로분석결과의 모형을 분석하는데 앞서, 본 모형의 모형부합도를 아래의 <표 4>와 같이 알아보았다.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절차로 부합도 지수를 통해 알아보게 된다. 본 연구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χ^2 이 6.6이고 그 확률치가 0.252로 모델의 부합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FI, AGFI, TLI, NFI의 지수들이 모두 0.9 이상으로 제시되었으며, RMSEA수치도 .037로 .05미만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 본 모형이 현실적인 자료에 잘 부합되며 자료사이의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4> 부합도 지표

부합도지수	χ^2	df	p	GFI	AGFI	RMESA	TLI	NFI
기본모형	6.600	5	0.252	0.995	0.940	0.037	0.972	0.997

(2) 경로분석

본 연구의 경로분석결과는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요인(빈곤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사의 지지, 조직참여 경험, 문제행동,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정도)의 변수가 각각의 임파워먼트(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표 5>에 나타내고, 임파워먼트가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표 6>에,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5>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요인과 임파워먼트⁵⁾

경로	Estimate	SE	CR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 가족관계	0.445**	0.157	2.833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 가족관계	0.400**	0.151	2.654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 가족관계	0.262**	0.098	2.660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 교사의 지지	0.485***	0.131	3.711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 교사의 지지	0.536***	0.125	4.281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 교사의 지지	0.251**	0.082	3.076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 친구관계	0.421***	0.117	3.602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 친구관계	0.571***	0.112	5.098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 친구관계	0.258***	0.073	3.534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 조직참여경험	-0.443	0.196	-0.219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 조직참여경험	0.427*	0.188	2.269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 조직참여경험	0.263*	0.123	2.146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 문제행동	0.038	0.092	0.415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 문제행동	-0.384***	0.088	-4.353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 문제행동	0.001	0.058	0.024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 서비스이용	0.031	0.030	1.016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 서비스이용	0.002	0.029	0.076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 서비스이용	0.005	0.019	0.250

*** p<.001 ** p<.01 * p<.05 #<1

우선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요인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보여지듯이 가족관계의 변수는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도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교사 지지의 변수는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서는 유의도 .001수준에서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에서는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5) Estimate는 분산과 공분산의 값을 의미하며, SE는 표준오차, CR은 기각률을 의미한다.
CR값은 3.29이상이면 유의수준 .001, 2.58이상이면 유의수준 .01, 1.96이상이면 유의수준.05, 1.65이상이면 유의수준 .1을 의미한다.

조사되었다. 친구관계는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도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족관계, 교사의지지, 친구관계의 변수는 모두 임파워먼트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밝혀져 외국의 선행연구(Ortiz-Toress, 1994; Markstrom, 2000)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도 가족관계, 교사지지, 친구관계가 임파워먼트 형성에 긍정적 도움이 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조직참여경험 변수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와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에만 유의도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조직에 참여하는 활동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형성하는데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와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형성에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머만(1990)과 지머만외(1998)의 연구에서처럼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보고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선행연구에서의 연구결과는 임파워먼트의 결과를 본 연구와 같이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의 세부화하지 않아 청소년 조직에서의 참여가 임파워먼트의 세부적 영역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나라 청소년에 한정된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행동변수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만 유의도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그 값이 음수로 나타나 문제행동이 적을수록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결과가 높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형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나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형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의 변수는 각각의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단순히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임파워먼트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임파워먼트가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의 <표 6>과 같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유의도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자립준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의 경우는 유의도 수준을 .1까지로 향상시켜 보았을 때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비해 그 영향력이 낮다고 평가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를 발전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임파워먼트와 자립준비

경로	Estimate	SE	CR
자립준비←개인내적 임파워먼트	0.080**	0.026	3.087
자립준비←대인관계 임파워먼트	0.061**	0.021	2.898
자립준비←정치,사회 임파워먼트	0.072#	0.039	1.830

*** p<.001 ** p<.01 * p<.05 #<.1

빈곤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조직참여경험, 교사의지지, 문제행동, 서비스 이용, 친구관계의 변수가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다음의 <표 7>과 같이 가족관계변수가 유의도 .05수준에서 그리고 교사의 지지변수는 유의도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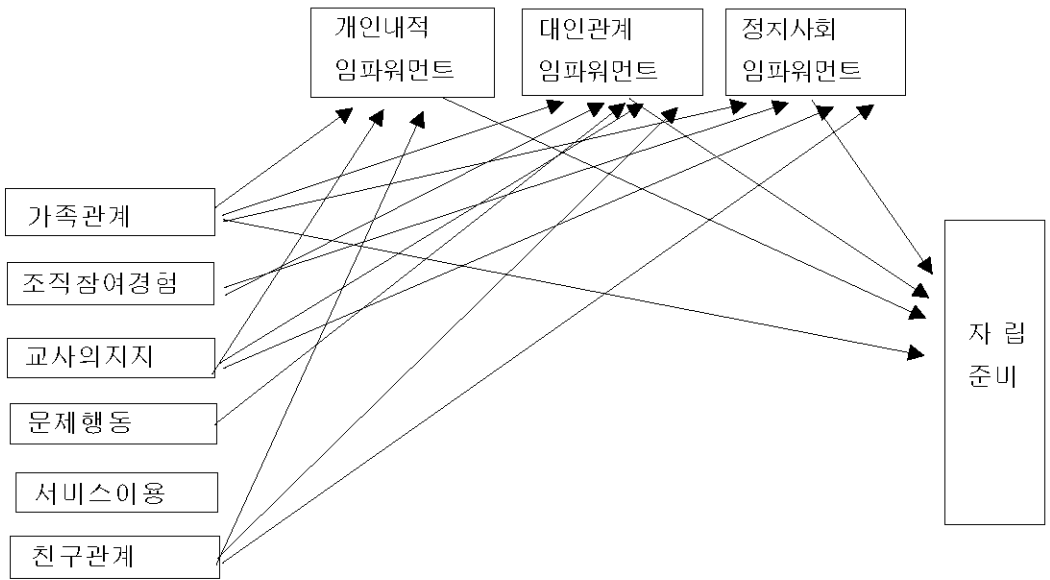
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7>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과 자립준비

경로	Estimate	SE	CR
자립준비 ←가족관계	0.114*	0.047	2.443
자립준비 ←조직참여경험	0.038	0.059	0.645
자립준비 ←교사의지지	0.205***	0.040	5.147
자립준비 ←문제행동	0.005	0.028	0.166
자립준비←서비스 이용	0.006	0.009	0.726
자립준비 ←친구관계	0.007	0.036	0.181

*** p<.001 ** p<.01 * p<.05 #<1

이상과 같은 결과에 따라 자립준비와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다음의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그림 2> 경로모형

(3)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검증

각각의 독립변수가 자립준비에 대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빈곤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조직참여경험, 교사의지지, 문제행동, 서비스 이용, 친구관계의 변수가 자립준비에 미치는 직접

6)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관계만을 선으로 표시하였다.

효과와 간접효과⁷⁾를 알아보고자 한다. 직접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간접효과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하나 이상의 중간변수에 의해 매개되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므로 앞의 결과에 따르면 조직참여경험과 문제행동, 친구관계의 변수는 자립준비에 대해 임파워먼트를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임파워먼트가 매개효과를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가족관계, 교사지지의 두 변수는 자립준비에 대한 직접효과와 임파워먼트를 통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값을 비교해 보니 교사의 지지의 경우에는 직접효과가 .314이고 간접효과가 .082로 직접효과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직접효과가 .050이고 간접효과가 .158로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가족관계가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기능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의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8>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비교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족관계	.050	.158
교사의 지지	.314	.082
친구관계	×	○
조직참여경험	×	○
문제행동	×	○
사회복지서비스이용	×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빈곤의 상황을 탈피하고 자립하는데 있어 임파워먼트가 자립준비에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족관계, 친구관계의 변수가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립준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를 통한 간접효과가 의미 있거나 그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임파워먼트가 매개효과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참여경험이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와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를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이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미하여 이들 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임파워먼트가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변수와 자립준비 사이에서 매개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변수는 임파워먼트를 통한 간접효과나

7) 직접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효과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하나 이상의 중간변수에 의해서 매개되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과분석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자립준비에 대한 직접효과 모두 무의미하게 나타나 단순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주는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는 자립준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보다 임파워먼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계는 간접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립을 준비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임파워먼트 과정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빈곤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는 가족, 또래집단의 지지와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힘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자립에 필요한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빈곤을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해결방법에도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참여경험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와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의 매개기능을 통해 자립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조직에 참여한 경험이 자립준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와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의 경로는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조직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힘을 갖는 것보다는 대인관계 속이나 사회적으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셋째, 문제행동 변수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통해 자립준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가정 청소년 중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힘을 갖는 것이 개인내적이나 정치, 사회적 임파워먼트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빈곤가정 청소년이 자립준비를 함에 있어서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임파워먼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입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의 변수는 각각의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자립준비에 대한 직접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 여부만으로 자립준비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빈곤가정 청소년에 관한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 고등학생은 이미 진로나 행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어 있고, 개입과 접촉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학생에 비해 사회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제외되고 있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정치, 사회 임파워먼트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비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빈곤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비해 정치, 사회 임파워먼트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은 지역사회의 종교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조직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임파워먼트를 형성하는데는 제한점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개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현, 따라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자립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향상이 기초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청소년 참여활동을 확대하고, 기존의 청소년 조직체나 관련 조직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빈곤가정과 주변의 빈곤한 문화에서 자라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양상을 보인다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도 건전하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더욱이 대인관계나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고 실제 그러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빈곤가정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빈곤가정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의 인식전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곤가정 청소년 관련 요인과 자립준비의 관계에 있어서 임파워먼트가 매개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임파워먼트의 매개기능을 이론화하는데 실증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실제현장에서 빈곤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파워먼트 과정과 개입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민정. 2000.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일에 대한 태도, 자립의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주·길은배·정희수. 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문화관광부.
- 김효빈. 2001. “혈액투석 환자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충래. 2001.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기술 훈련”. 『한국아동복지학회』: 31-40.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고은. 1999. “심리적인 임파워먼트가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 연구”. 이화여대 경영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 2001.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지침』.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범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대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옥경희. 1993. “가족배경변인과 시간제 취업경험이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7(제14권 2호): 149-168.
- Barnett, D., J. I. Vondra, and S. M. Shonk. 1996. “Self-Perceptions, Motivation, and School Functioning of Low-Income Maltreated and Comparison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20(5): 397-410.

- Bolton, B. and J. Brookings. 1998.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rapersonal Empower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43(2): 131-142.
- Ease, J. F. 1999. "An Empowerment Practice Model For Low-Income Women".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edited by W. Shera and L. M. Wells. Canadian Scholars' Press, Inc.
- Edward, B. M. 1999. "Social Change and the Empowerment of the Poor".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Doctoral Dissertation.
- Gibson, C. H. 1991. "A Concept analysis of empower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6: 354-361.
- Grossman, F. K., J. Beinashowitz, M. Anderson, and M. Sakurai. 1992. "Risk and Resilience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5): 529-550.
- Gutierrez, L.M. 1994. "Beyond coping".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1(3): 201-219.
- Gutman, L. M. and C. Midgley. 2000.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 in Support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Poor African American Student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23-248.
- Hawkins, W. E., M. J. Hawkins, C. Sabatino, and S. Ley. 1998. "Relationship of Perceived Future Opportunity to Depressive Symptomatology of Inner-City African-American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9/10): 757-764.
- Hill, M. S. and J. R. Sandford. 1995. "Effect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Implication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91-126.
- Howard, D. E. 1996. "Searching for Resilience Among African-American Youth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8: 254-262.
- Israel, M. and M. Seeborg. 1998. "The Impact of Youth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on Transitions Out of Poverty". *Journal of Socio-Economics* 27(6): 753-776.
- Lord, J. and P. Hutchison. 1993. "The Process of Empowerment".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12(1): 5-22.
- Markstrom, C. A., S. K. Marshall, and R. J. Tyron. 2000. "Resiliency,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Rural low-income Appalachian Adolescents from two racial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23: 693-703.
- McLoyd, V. C., T. E. Jayaratane, R. Ceballo, and J. Borquez.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Child Development* 65(2): 562-589.
- Nollan, K. A., M. Wolf, D. Ansell, J. Burns, L. Barr, W. Copeland, and G. Paddock. 2000. "Ready or Not: Assessing Youths'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 Welfare* 79(2): 159-176.
- Ortiz-Torres, Blanca. 1994. "The Ecology of Empowerment for At-risk Youth". Ph. D. Diss. New York University.
- Parsons, R. 1999. "Assess Helping Process And Client Outcomes In Empowerment Practice".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edited by W. Shera and L. M. Wells. Canadian Scholars' Press Inc.
- Routh, D. K. 1994. "Impact of Poverty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346-348.
- Schulz, A. J. B. A. Israel, M. A. Zimmerman, and B. N. Checkoway. 1995. "Empowerment as a

- multi-level Construct". *Health Education Research* 10(3): 309-327.
- Quane, J. M., B. H. Rankin. 1998. "Neighborhood Poverty, Family Characteristics, and Commitment to Mainstreams Goals".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769-794.
- Roberts-Grey, C., S. Steinfeld, and W. Bailey. 1998. "Goal Setting and Progress evaluation in youth empowerment program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2: 21-30.
- Schulz, A. J., B. A. Israel, M. A. Zimmerman, and B. N. Checkoway. 1995. "Empowerment as a multi-level Construct". *Health Education Research* 10(3), pp. 309-327.
- Simmons, C. and R. Parsons. 1983. "Empowerment for role alternatives in adolescence". *Adolescence*: 18(69), pp. 193-200.
- Solomon, B. B. 1976. *Black Empower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immerman, M. A. and J. H. Zahniser. 1991. "Refinement of Sphere-Specific Measures of Perceived Control: Development of a Sociopolitical Control Scal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189-204.
- Zimmerman, M. A. 1990. "Toward Theory of Learned Hopeful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4: 71-86.
- Zimmerman, M. A.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81- 599.
- Zimmerman, M. A., J. Ramirez-Valles, and K. I. Maton. 1999. "Resilience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Male Adolescents: A Study of the Protective Effects of Sociopolitical Control on their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33-751.
- Zimmerman, M. A. and J. Rapport. 1988.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5): 725-731.

Mediator Effect of Empowerment on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of Poor Adolescents

Kim, Hee-Sung
(MyungGi College)

This study was motivated from the proposition that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is important for future independent life of poor adolescents.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 of empowerment as a mediator as well as analyzing the effects of predictive factors of readiness for their self-sufficiency. For conducting this study, a survey method was used on 240 poor adolescents residing in Seoul. This study used path analysis method for analyzing mediator effect of empowerment. In the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had effect on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through empowerment(intrapersonal, interpersonal, sociopolitical) were family relations and peer relations. Participation in social organization variabl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through interpersonal empowerment and sociopolitical empowerment. Problematic variabl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through interpersonal empowerment. Such results provided knowledge foundations for diverse social work approaches related to promoting empowerment. Specifically, this study shows that diverse social services are necessary for promoting poor adolescents readiness and social work interventions are necessary for strengthening adolescents empowerment.

Key words: Empowerment,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Poor Adolescents

[접수일 2004. 4. 5. 게재확정일 2004. 5. 10.]